

## 기술표준원, 홍보 강화 위한 'KATS 홍보 얼라이언스' 개최 유관기관의 공동 홍보과제 도출을 위한 '홍보 플랫폼' 건의 ... 언론 동향 등 정보 공유키로



▲ 'KATS 홍보 얼라이언스' 참석자들이 회의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실시했다.

기술표준원과 유관기관 간의 홍보 업무협력 네트워크인 'KATS 홍보 얼라이언스'가 6월 28일 기술표준원 국제회의실에서 홍보 업무 담당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KATS 홍보얼라이언스' 목적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오갔다. 특히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을 통한 유대감 강화 방안으로 홍보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언론 동향 스크랩 등 정보를 교환하고 기관지, News letter 등 간행물을 배송하고 언론 대응경험을 공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언론기자 등 전문가를 초청한 분기별 홍보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5분 스피치' 시간에 유관기관 홍보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전문성, 인력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밖에 각 기관별 정책고객 관리와 홍보기법 소개, 최근 리콜제도 시행 후 빈번해진 TV방송 취재에 대한 대응방안, 특히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갑작스런 취재 요청 경험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더불어 언론기관의 잦은 광고 요청에 대한 대응요령, SNS를 이용한 최신 홍보트렌드 구축 현황, 유관기관의 공동 홍보과제 도출을 위한 '홍보 플랫폼'도 건의되었다.

7월 홍보 얼라이언스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되었으며 매달 유관기관 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되고 있다.

## 기술표준원 인사 동정

### (인사동정)

송국현 수석연구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이현자 수석연구관 기술표준원

김승재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적합성정책과

### (간원처리 우수직원)

김종오 공업연구사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이석호 주무관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윤근 공업사무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양재원 주무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류연욱 공업연구사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송현경 주무관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구창환 공업연구사 지식산업표준국 신산업표준과

서광열 공업연구사 지식산업표준국 주력산업표준과

박우진 주무관 지식산업표준국 주력산업표준과

박용균 공업연구사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 한국표준협회, '나눔' 실천 위한 청소년 체험의場 마련

7월 2일 부천남중학교 '모험상담반' 챌린지 어드벤처 코스로 초청 ... 책임감과 도전정신 기르는 기회로



▲ 희망나눔 행사인 챌린지코스를 마친 부천남중학교 학생들이 다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은 7월 2일 부천남중학교 '모험상담반'을 초청. 연수원 내 챌린지 어드벤처 코스에서 청소년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팀 훈련을 해나가면서 지존기를 형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로 신뢰와 책임감을 높여 스스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며 도전정신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를 맞보았다.

이번에 초대된 부천남중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험상담(adventure based counseling)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다양한 모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험상담이란 집단의 공동 해결과제를 계열화시켜 집단 내에서 협동심, 인내력, 창의력에 기초한 왕성한 의사소통과 역동적인 활동과정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성장을 촉진하는 집단상담의 형태를 말한다.

한국표준협회에서는 그 동안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체험 교육프로그램인 '챌린지 어드벤처'가 한창 꿈과 희망이 풍부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정신적인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생

각으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챌린지 어드벤처 과정의 인솔자로 참여한 박지해 교사는 "금번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맘껏 맛보았으면 좋겠다"며 초청해주신 한국표준협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한편 2000년 5월 협회 연수원에 처음 도입된 '챌린지 어드벤처'는 행동하며 가슴으로 느끼는 국내 대표적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클라이밍, 사이언트 스윙 등 하이코스 20가지와 스피이더 웹, 신뢰 쌓기 등 로우코스 1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LG, KT, 국민은행, 신한금융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비롯한 500여 기업이 세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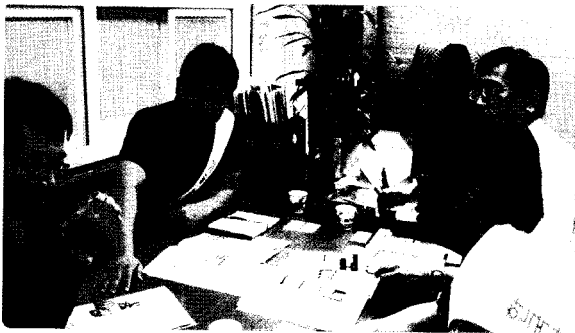


▲ 챌린지 코스의 하나인 사이언트 스윙 후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부천남중학교 학생들.



## 화학융합시험원, 직원들 참가한 통합 1주년 '기술홈닥터'

전국 34개 신청 업체 직접 방문해 기술적 애로사항 등 해결책 공유, 해외진출 방법 등 컨설팅



▲ KTR 직원들이 경기도의 한 전자업체를 찾아 기술인증 등 컨설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구원 통합 1주년을 맞아 지난 7월 8일, KTR 전국 직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술홈닥터'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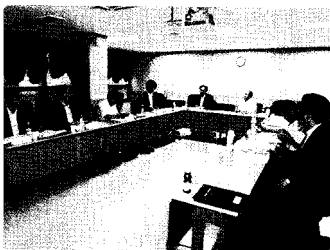
이날 '기술홈닥터' 참가 직원들은 서울과 경기지역은 물론 충남, 전북, 부산 등 전국에서 신청한 34개 업체와 기관을 직접 방문,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시험인증 및 해외진출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벌였다.

인천의 한 소형가전 제조업체는 기술홈닥터를 통해 인정시험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충북의 한 콘택트렌즈 업체는 렌즈의 수분과 독성제거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기업들은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해외인증절차와 인증 시 준비사항, 수출국의 강제규정 등 수출을 위한 문의가 적지 않았다.

KTR은 이날 실시한 기술홈닥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제품개발과 시장개척,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화학융합시험원,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협의체' 회의

7월말 기술기준 마련 ... 9월말 융합제품 시험검사 거쳐 10월 중 적합성 인증 발급 예정



▲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협의체' 회의 장면.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소와 인증기술본부는 7월 12일 본원 2층 중강의실에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적합성인증협의체는 관계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 인증기관으로 구성되어 신청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조직이다. 이날 회의에는 적합성인증협의체 위원장인 김충혁 광운대학교 교수를 비롯

해 이대훈 한국소비자원 실장, 심창호 에너지관리공단 부장, 지동근 한국LED보급협회 센터장, 한국광기술원 등 외부 인사와 KTR 인증기술본부와 그린LED팀, 안전인증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융합신제품인 스마트 태양광 LED 가로등과 보안등 등 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과 적합성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안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

적합성인증협의체는 7월말까지 적합성 인증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9월말까지 융합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거쳐 10월 중 적합성 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KTR은 적합성인증협의체를 통해 산업융합 촉진법 발효 이후 적합성인증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시장 출시 성공사례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 친환경상품 녹색인증 시대 열어

친환경상품제조협회와 녹색마크 인증업무 이관 협약 ... 인증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 기대

**IC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친환경상품제조협회는 지난 7월 5일 본원 회의실에서 "녹색마크 인증업무 이관에 대한 합의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양 기관이 녹색마크 인증업무를 이관하고 앞으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인증업무에 있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녹색인증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녹색마크 인증업무 이관으로 친환경상품에 대한 녹색마크 인증에 있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친환경상품제조협회는 녹색마크에 대한 모든 권리와 관련 서류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이관하고 녹색마크 인증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또한 지난 7월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합 창립 1주년을 기념해 관련업체 CEO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세미나에는 (주)카스, 다담전자, 알톤스포트 등 관련 업계 200여 사 CEO가 참석하였다. 심운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두 기관 통합 창립의 기본 취지는 대외개방에 따른



▲ 심운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녹색마크 인증업무 이관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융·복합화 산업기술에 부응하기 위한 선진인증기관을 만드는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해외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협정 등 국제표준화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FTI시험연구, 경기 시화단지에 안산시흥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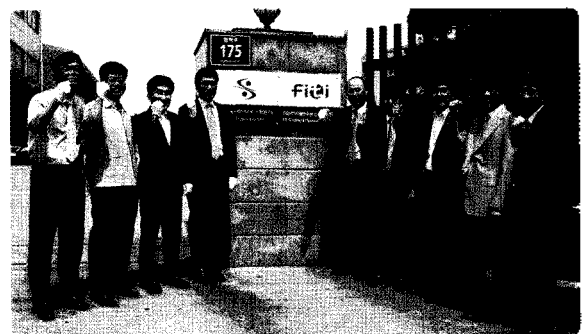
국내 최대 원단검사기관 KSK와 전략적 업무 제휴 ... 경기도 고객에 근접지원 가능

**fi** FTI시험연구원은 2011년 7월 5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단지에 섬유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흥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안산시흥센터의 개소는 국내 최고의 원단검사전문업체인 (주)KSK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양 기관은 섬유제품에 대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FTI시험연구원이 가진 시험기술과 (주)KSK가 가진 검사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정식에서 노문옥 FTI시험연구원 원장은 "섬유산업의 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 기관의 협력체제를 발판으로 시험·검사의 기술교류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고한식 (주)KSK 사장도 지역의 기업들을 근접지원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은 FTI시험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험, 검사, 인



▲ 안산시흥센터 개소식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증의 one-stop 서비스와 경기지역의 고객들에 대한 근접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 고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FTI시험연구원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지속적인 시험·검사업무의 발전을 통해 국내 섬유 패션·의류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